

## 국내 성인지적장애인 음악치료 중재 현황

오지은\*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 음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임상중재의 현황과 중재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으로 음악치료제공경험이 있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음악치료사 39명 가운데 정규 자격증을 취득한 음악치료사 3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음악치료사의 배경정보, 성인지적장애인 음악치료 환경, 형태, 음악치료 진단, 목표설정, 중재 전략,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성인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는 사회복지시설, 병원, 음악치료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치료사들이 설정한 주된 음악치료 목표는 상호작용 향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 담당자의 의견과는 일치했지만 음악치료가 소속된 기관의 서비스 항목인 정서 안정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에서 상호작용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된 활동은 악기연주로 나타났고, 음악치료 내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한 음악 요소는 형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중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관 관련 요인은 기관의 특성이었고, 대상 관련 요인은 기능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중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진단도구 개발과 기관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효과적인 중재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향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음악치료사 인식, 성인지적장애인, 음악치료, 설문조사

\*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음악치료사, 음악중재전문가(KCMT) (woodnote86@gmail.com)

## I. 서론

음악치료는 전문 음악치료사가 음악을 통해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체계적인 중재 과정이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임상적 효과는 음악치료사들의 실제적인 중재실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된다(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이하 AMTA, 2013; Chong, 2015). 음악치료 중재의 구성 및 적용에는 임상적 효과 외에도 음악치료 현장의 여러 요인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기관의 환경적 특성 및 운영목적에 맞게 설정된 치료목표, 치료기법 등 다양한 특성들이 반영된다(AMTA, 2013; Davis, Gfeller, & Thaut, 2008; Isenberg-Grzeda, 1988). 이러한 특성들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음악치료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내담자 뿐 아니라 기관의 필요와 특성을 포함한 현장의 정보를 획득하고 중재실행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치료 세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반영하게 되는 다양한 범위의 정보에 있어서는 내담자 개인의 필요가 우선되지만, 기관을 이용하는 성인기 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목적영역이 규명되어 있다. 또한 다른 연령대와 달리 성인기의 특성에 맞춘 중재개입의 필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내외의 필요에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치료분야에서도 장애인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필요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인지적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지적 능력 및 사회적응능력의 결핍을 고려해 볼 때 전 생애에 걸쳐 독립적 생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며(Kim, 2010), 성인지적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지원 프로그램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실태파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Yoon, 2013).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음악치료 분야 내 성인지적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대부분의 임상연구들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조사연구 역시 대상군의 연령대에 따른 구분에 상관없이 음악치료 실행 현황이나 프로그램 내 진단도구 등에 대한 결과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Kim, 2006; Kim & Kim, 2011; Kim & Yoon, 2012). 소수이기는 하나 성인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사회, 정서, 인지, 신체 등 개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음악적용이 실행되어 왔으나(Hooper, Wigram, Carson, & Lindsay, 2008; Jin, 2005; Kim, 2013; Park, 2011), 프로그램 내용이나 연구방법에 있어 장애아동 대상 연구와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연구를 살펴보면 음악치료 서비스 주 수혜자로서 성인지적장애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지적장애인’ 혹은 ‘성인장애인’ 등 세분화된 연구대상군의 분류가 제시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적용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서도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의 현황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찾기 어려운데, 보건복지부의 기관별 운영지침에 명시된 서비스 항목을 살펴 보면 주로 음악치료의 서비스 제공 영역이 정서 안정, 기능 향상, 여가 지원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렇듯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는 실제 기관에서 성인지적장애인의 구체적인 치료중재의 필요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가 실행되는 기관의 특성,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자의 특성, 음악치료 중재에서의 진단, 목표설정, 중재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중재의 특성과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중재의 실행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음악치료사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시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음악치료사들로 정규 음악치료 과정을 이수하고, 음악중재전문가(사단법인 전국음악치료사협회) 또는 임상음악전문가 1급(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중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자를 포함한 시설에 한하여 음악치료사 고용여부를 온라인상으로 파악하고, 음악치료사가 있는 경우 전화로 설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다. 또한, 음악치료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에 공문발송을 통하여 해당 대학의 음악치료 석사과정 졸업생들 중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를 시행여부를 문자와 메일로 문의하였다. 이에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한 음악치료사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동의한 자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문참여를 수락한 총 40여 명에게 전화 및 이메일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설문 참여에 최종 동의한 39명이 설문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설문은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되어 총 39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39부의 응답 중에서 전문음악치료사 자격증이 없거나 무응답 한 6부를 제외한 32부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설문 조사의 선택형 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의 기술통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했고, 개방형 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 2. 연구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의 문항과 관련해 박사과정 이상의 음악치료전문가 2인에 의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추가로 박사과정 이상 음악치료전문가 3인에게 문항의 타당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설문을 수정 및 보완 했다. 문항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반적인 정보(총 8문항), 두 번째 부분은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의 시행환경 및 형태(총 12문항), 세 번째 부분은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중재 과정 및 전략(총 11문항), 네 번째 부분은 성인지적장애인 음악치료 시행 시의 어려움(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시행환경에 대해 묻는 문항의 경우 선행연구(Eom, 2015; Hadsell, 1993; Jeon, 2014; Lee, 2014)를 참고하여 음악치료 공간, 설비, 시간, 세션 형태와 같은 환경 정보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고용 기관의 특성, 치료적 우선순위, 치료접근 방법 등은 음악치료사가 중재를 실행하는데 있어 치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항도 포함하였다.

음악치료 중재 과정은 진단, 목적 및 목표 설정, 경과에 대한 문서화, 평가 및 종결로 구성되는데(Chong, 2015; Hanser, 1999) 본 연구에서는 문서화 및 평가 전 단계까지인 정보 수집, 진단, 목표 설정, 중재 전략 설정까지 포함했다. 정보 수집에는 실제적인 중재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자의 진단명, 기능 수준, 생활연령, 배경 등의 정보(Davis et al., 2008; Isenberg-Grzeda, 1988)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진단에 대하여는 형식화된 진단도구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객관적인 평가 시행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중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음악치료의 표적행동이 되기도 하고 다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재에 방해가 되는 문제행동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성인지적장애인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보일 수 있는 문제행동은 자리이탈, 지시 거부와 같은 반항적 행동과 주의집중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Park, 2011), 유아기부터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한 무기력이나 난폭한 행동(Jin, 2005) 등이 포함된다.

## Ⅲ. 결 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에 포함된 32명의 응답자 가운데 여성이 31명(96.8%), 남성이 1명(3.2%)이었으며, 연

령대는 20-40대 사이에 분포하였다. 대상자들의 음악치료 전체 임상 경력의 평균은 32개월이었고,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임상경력의 평균은 26개월이었다. 설문 당시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를 실행하고 있는 응답자는 13명이었다(<Table 1> 참조).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 32)

Variable		n (%)
Gender	Female	31 (96.9)
	Male	1 (3.1)
Age, years	25-29	10 (31.3)
	30-34	10 (31.3)
	35-39	9 (28.1)
	40-44	2 (6.3)
	45-49	1 (3.0)
Certification institution of music therapy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	26 (81.3)
	Korean Music Therapy Association	6 (18.7)

## 2.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현황

### 1) 기관 관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를 시행한 기관은 복지관(48.4%), 장애인거주시설(25.8%), 주간보호센터(9.7%), 병원(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3.2%), 장애인 종합복지시설(3.2%), 음악치료센터(3.2%)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주 가운데 음악치료는 정서안정(37.5%), 기능향상(21.9%), 취미 및 여가활동(18.8%), 사회성 향상(6.2%), 직업적응훈련(3.1%)을 위해 제공되었다.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의 제공 공간은 다목적 독립공간이 가장 많았으며(56.3%), 음악치료 전용 공간(37%), 공동으로 사용되는 개방된 공간(6.2%) 순이었다. 음악치료사 고용형태는 파트타임(38.7%), 임상실습 및 인턴십(35.5%), 풀타임(25.8%)으로 나타났다.

### 2) 내담자 관련

성인지적장애인 내담자의 주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59.4%)을 보이고, 30대가 25.0%, 40대가 12.5%, 50대가 3.1%를 차지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내담자의 참여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인지적장애인이 포함된 그룹 음악치료 세션 시행 경

힘이 있는 음악치료사 28명 중 78.1%를 차지하는 25명이 지적장애 외 중복진단을 받은 내담자나 다른 장애를 가진 내담자가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중복장애로는 자폐성장애(52.6%)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언어장애(18.4%)가 뒤를 이었고, 시각장애(3.1%), 다운증후군(3.1%), 지체장애(3.1%), 정신장애(4.7%)를 가진 내담자가 포함되었다는 응답(4.7%)이 있었다.

### 3)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실행 관련

#### (1) 음악치료 시행 형태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에 의하면 세션의 형태는 개인(31.3%)보다 그룹(68.8%)의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기별 진행 시간은 그룹 40분(37.5%), 그룹 50분(21.9%), 개인 30분(18.7%), 개인 40분(12.5%), 그룹 60분(6.3%), 그룹 70분 이상(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평균 횟수는 1회가 70.9%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지적장애인 내담자가 음악치료에 참여하는 기간에 대한 응답은 1년 이상이 40.6%로 가장 많았다.

#### (2) 음악치료 정보 수집 및 진단

응답자들이 음악 외적 환경에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방법 중 기관 문서 열람(47.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보호자 면담(19.6%), 내담자 본인 면담(13.0%)과 기관담당자 면담(13.0%), 표준화된 검사도구 활용(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음악치료 진단도구로 비형식적 진단도구(55.9%)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음악치료 진단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3.5%, 형식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응답이 14.7%로 그 뒤를 이었다.

#### (3) 음악치료 목표

응답자들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관련 사항은 ‘기관의 특성(40.6%)’이었으며, 내담자 관련 사항은 ‘내담자의 기능수준(59.4%)’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이 속한 기관의 담당자가 치료 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40.6%였으며, 기관 담당자가 음악치료에 요구하는 것은 사회기술 향상(45.0%), 정서안정(30.0%), 주의집중력 향상(20.0%), 긍정적 정서 함양(5.0%)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음악치료사인 응답자들이 설정한 목표영역은 사회/정서영역이 78.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지영역(18.8%), 언어/의사소통영역(3.1%)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영역에서는 상호작용(40.6%), 자기효능감(15.6%), 감정표현(9.4%), 타인인식(6.3%), 자기표현(3.1%) 순으로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인지영역에서는 주의집중(18.8%)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의사소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세부영역에 응답하지 않았다(<Table 2> 참조).

&lt;Table 2&gt; Goal Areas of Music Therapy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ID) (N= 32)

Goal area		n (%)
Cognitive	Attention	6 (100.0)
	Subtotal	6 (100.0)
Social/Emotional	Social interaction	13 (52.0)
	Self-efficacy	5 (20.0)
	Emotional expression	3 (12.0)
	Awareness of others	2 (8.0)
	Self-expression	1 (4.0)
	No report on sub-goals	1 (4.0)
	Subtotal	25 (100.0)
Language/Communication	No report on sub-goals	1 (100.0)
	Subtotal	1 (100.0)
Total		32 (100.0)

#### (4) 중재 전략

##### ① 음악사용 관련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에서 실행된 음악활동은 구조화된 즉흥연주(50.0%), 즉흥연주(21.8%), 음악 만들기(9.4%), 노래 부르기(6.3%), 음악과 동작(3.1%), 기타(구조화된 즉흥연주, 무응답: 9.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사들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중재에서 활용할 음악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음악요소는 형식(31.2%), 리듬(25.0%), 선율 및 가사(각 9.4%) 순이며, 이 밖에 내담자 선호음악, 음악의 분위기, 긴장과 이완이 대비되는 구조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와 같은 요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제공하였고, 이에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32명 중 31명이었다.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핵심 단어를 위주로 살펴본 결과, 각 요소들이 다양한 방법 및 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형식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음악을 인식하도록 돕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Table 3> 참조).

##### ② 문제행동 및 중재전략

음악치료 세션 내에서 성인지적장애인 내담자의 문제 행동이 관찰되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 중 71.9%(23명)이었으며, 문제행동은 공격적 말 혹은 행동(31.2%), 주의산만(25.0%), 불안·강박·위축 행동(17.0%), 충동행동(12.2%), 자기자극 및 성적인 행동(각 9.4%),

저항적 행동 및 무응답(각 4.9%) 순으로 나타났다. 각 문제행동에 대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중재 전략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된 특정 전략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 Rationale for Therapeutic Use of Music

Therapeutic elements	Rationale	Number of respondents <i>n</i> (%)
Forms	Facilitate the perceptual processing of music	5 (14.3)
	Adjust the level of musical activities	2 (5.7)
	Provide the structure for self-expression	1 (2.9)
	Increase accurate task performance	1 (2.9)
	Elicit the sense of accomplishment	1 (2.9)
	Control the pace of activities	1 (2.9)
	Provide the structure for social interaction	1 (2.9)
	Facilitate the role recognition in a group	1 (2.9)
Subtotal	13 (37.4)	
Rhythm	Facilitates the perceptual processing of music	1 (2.9)
	Elicits increased attention	1 (2.9)
	Elicits the sense of accomplishment	1 (2.9)
	Presents the tool for expression	1 (2.9)
	Modulates the level of the tasks	1 (2.9)
	Elicits social interaction via rhythm imitation	1 (2.9)
Subtotal	6 (17.4)	
Melody	Elicits the experience of a variety of emotions	2 (5.7)
	Presents the tool for self-expression	2 (5.7)
	Facilitates the perceptual processing of music	1 (2.9)
Subtotal	5 (14.3)	
Lyrics	Presents the tool for self-expression	2 (5.7)
	Presents the tool for direction	1 (2.9)
	Facilitates the awareness of others	1 (2.9)
Subtotal	4 (11.5)	
Styles/Mood	Elicits the state of relaxation	1 (2.9)
	Evokes emotions	2 (5.7)
Subtotal	3 (8.7)	
Clients' musical preference	Enhances the motivation	2 (5.7)
	Elicits increased attention	1 (2.9)
	Elicits the engagement in the sessions	1 (2.9)
Subtotal	4 (11.5)	
Total		35 (100.0)



## (5)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의 어려움

조사 대상자들이 서술한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을 때 크게 목표설정, 환경, 중재전략, 진단, 기관인식, 보호자, 음악 치료 효과 관련된 사항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중 환경적 문제와 목표설정 관련 어려움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각 범주별 세부적인 응답은 <Table 4>와 같다.

&lt;Table 4&gt; Perceived Difficulty in Implementing Music Therapy Sessions with Adults with ID

Category	Number of responses n (%)	Examples of responses
Establishment of goals	14 (3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fficulty in establishing the goal for the group of clients with a diverse range of functioning</li> <li>• Difficulty in determining urgent needs of adults with ID</li> <li>• Difficulty in establishing the goal for clients with severe levels of disabilities</li> </ul>
Environment	9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ferral of the group with a great diversity of clients in terms of their ages and the level of functioning</li> <li>• Inadequate places for sessions (e.g., limited space; open area that allows access of people during sessions)</li> </ul>
Intervention strategies	5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fficulty in establishing the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 group with a diverse range of needs</li> <li>• Difficulty in communication with clients</li> </ul>
Assessment	3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ck of standardized assessment tools</li> </ul>
Cooperation with staff at institution	3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ouping of the client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functioning or the needs of clients by staffs</li> <li>• Requests for the length of sessions or goal area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functioning or the needs of an individual client</li> </ul>
Interaction with caregivers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aling with caregivers who request the provision of music training for clients regardless of their clinical needs</li> </ul>
Music skills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eds to continuously update the repertoire of songs preferred by clients in 20s</li> </ul>
Intervention outcomes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low progress in target goals due to progression of disabilities</li> </ul>
No response	2 (5.1)	-
Total	39 (100.0)	

Note. Multiple responses are allowed.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현황 및 중재 실행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성인지적장애인 음악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총 32명의 응답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고, 자료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의 시행 현황, 음악치료 중재 과정, 중재 전략, 중재의 어려움 등 음악치료 중재 전반에 관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음악치료 시행현황의 경우 음악치료 중재는 대부분 복지관(46.9%)이나 거주시설(28.1%)에서 이루어지며 기관 내 음악치료 서비스가 소속된 서비스 목표영역은 정서안정(37.5%), 기능향상(21.9%), 취미 및 여가활동(18.8%)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적장애인의 생애주기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성인기 이전의 교육 및 기능향상의 초점에서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으며, 음악치료사들의 중재구성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음악치료 내 음악사용의 경우 구조화된 연주(50.0%)와 즉흥연주(21.8%)를 포함한 악기연주형태의 사용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음악선곡 시 고려사항에도 음악의 형식(31.2%)이나 리듬(25.0%)이 내담자의 선호음악(18.7%)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치료 중재가 다양한 진단명을 포함한 그룹형태로 진행되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 치료사들이 제시한 음악요소의 선택 근거들을 살펴보면 음악치료사들이 지적장애인들의 전반적인 기능수준에 대한 이해나 치료논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음악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음악인식의 용이성, 활동 수준의 융통적 조절 등은 사회기술향상을 주 목표로 설정하는 이전 문항의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세션 중 관찰되는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공격적 말 행동(31.2%)과 주의산만(25.0%)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치료사들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 응답자 경력 수준이 비교적 짧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임상실습 및 인턴과정을 통해 수련된 다양한 대처전략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력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대상군에 특화된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사들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세션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주로 목표설정의 어려움과 치료환경의 열악함 등이 있으며, 이는 그룹 구성원의 기능수준의 큰 편차와 그룹 내 진단명의 이질성이라는 성인지적장애인 기관 내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기관 세션의 특성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현상으로 목표설정의 어려움, 문제행동 개입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치료 세션의 질 향상과 치료사들의 역량강화에 있어 음악치료 내적인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임상현장은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여러 진단명을 가진 성인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세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음악치료 중재내용 전반에 반영되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기라는 발달상의 특성이 기존의 음악치료 교육에서 폭넓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애 아동과는 다른 성인기의 필요와 환경적 특성에 대한 치료중재내용으로의 반영이 요구된다. 이는 음악치료 분야의 전문성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띄고 있으며, 치료사들이 경험하는 중재 진행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의 프로그램 구성 시 내담자군의 특성과 함께 기관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연구나 세분화된 조사연구 및 실행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음악치료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내 진단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아동 중심으로 구성된 음악 진단평가도구들의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군 모집 시 음악치료사 활동 현황에 대한 파악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정보로 인한 제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모집단의 크기를 확대하여 전국규모의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악치료의 전문성 발전과 치료사의 중재구성 및 실행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중요한 시점이며, 성인기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단명과 중재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13). *AMTA code of ethics*. Retrieved May 17th, 2015 from <http://www.musictherapy.org/about/ethics/>
- Chong, H. J. (2015). *Music therap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2nd e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 (2008).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3rd ed.). Silver Spring, MA: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 Eom, M. K. (2015). *A study on the music therapy for functional recovery in elderly admitted to long-term nursing care center*(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조사)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adsell, N. A. (1993). Levels of external structure in music therapy. *Music Therapy Perspectives*, 11(2), 61-65.
- Hanser, S. B. (1999). *The new music therapist's handbook* (2nd ed.). Boston: Berklee Press.
- Hooper, J., Wigram, T., Carson, D., & Lindsay, B. (2008). A review of the music and intellectual disability literature (1943-2006): Part two experimental writing. *Music Therapy Perspectives*, 26(2) 80-96.
- Isenberg-Grzeda, C. (1988). Music therapy assessment: A reflec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Journal of Music Therapy*, 25(3), 156-169.
- Jeon, Y. J. (2014). *The present state of music therapy in Korea hospital schools*(국내 병원학교의 음악치료 현황조사)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Jin, S. J. (2005). The effect of musical application to develop the emotional expression of mentally retarded adults(성인정신지체인의 감정 표현 향상을 위한 음악 활용의 효과).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2(1), 17-33.
- Kim, H. J. (2013). *The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on the self express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adult*(집단음악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 Kim, J. R. (2006). Special educators and music therapists' recognition of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class in elementary school(초등학교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조사).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3(1), 1-11.
- Kim, K. Y. (2010). Differences in subjective caregiving burden among mother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cross the life span(지적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어머니의 돌봄

- 부담감 차이).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2(2), 283-305.
- Kim, Y. K., & Kim, S. J. (2011).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the music therapy services in voucher programs of rehabilitative therapy and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장애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 음악치료 현황).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1), 179-204.
- Kim, Y. W., & Yoon, J. H. (2012).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music therapy for impaired children and th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장애아동 음악치료 실태와 특수 교사의 인식). *Journal of Learning Strategy Intervention*, 3(1), 31-58.
- Lee, L. D. (2014). *The actual condition of music therapy program at Seoul type day-care center*(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시행 실태 조사)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H. O. (2011). The effect of the community-based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on community use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활용기술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2), 79-94.
- Park, J. M. (2011). *Singing activities and improvement self-expressions for intellectually-disabled adults*(지적장애성인의 자기표현 증진을 위한 노래 부르기 활동) (Unpublished master's thesis). Pyeongtaek University, Pyeongtaek.
- Yoon, M. S. (2013). *The study of social service needs and policy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eoul*(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2013-PR-14). Retrieved from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013-PR-14.pdf>

- 게재신청일: 2016. 10. 11.
- 수정투고일: 2016. 11. 10.
- 게재확정일: 2016. 11. 17.

## The Current State and Implementation of Music Therapy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h, Ji Eun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music therapy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D) by conducting a survey of music therapists. Completed surveys from 32 certified music therapists were included for analysi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38 items that asked about the participants' background, work environment and music therapy implementation experience (including assessment, goal establishment, intervention strategy and difficul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usic therapy for adults with ID was practiced in diverse facilities. Enhancing social interaction was the most frequently set goal by music therapists, whereas facilities mostly required the music therapy services for emotional stability. Also, instrument playing was used most among music activities, and musical structure was considered most when choosing music for therapy. Among the influential institutional factors,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were considered most frequently, and the level of functioning was the most considered in terms of client-related factors. To advance the effective use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with adults with ID, development of music therapy assessment tools and more active communication with facility staff were also suggested when working with this population.

*Keywords : perception of music therapist,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usic therapy, survey*

---

\* Music Therapist, Palliative Care Center, Yonsei Cancer Center,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woodnote86@gmail.com)